

추수 감사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THANKSGIVING SUNDAY

주후 2021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양 Praise	“감사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골로새서(Colossians) 2:1-7	장경국 집사
찬 양 Anthem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대
설 교 Sermon	“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Overflow with Thankfulness)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89 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새 42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르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좇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며,

죄된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간구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참되고 더욱 진실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울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글개역 **골 2:6-7**)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NIV **Colossians 2:6-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1 (주일)	11/22 (월)	11/23 (화)	11/24 (수)	11/25 (목)	11/26 (금)	11/27 (토)
	대상16	대상17	대상18	대상19,20	대상21	대상22	대상23
본문	약3	약4	약5	벧전1	벧전2	벧전3	벧전4
	욥1	욥1	욥2	욥3	욥4	미1	미2
	눅5	눅6	눅7	눅8	눅9	눅10	눅11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24 오후7:30)	“여름바알이라 하였으니” (삿6:25-40)
토요 새벽기도회 (11/27 오전6:30)	“내 마음이 놀랄 때에” (시61:1-8)

지난 주일(11/14, 강단교류주일) 말씀 – 김윤민 목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요 8:1-11)

종종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 것인지? 아닌지? 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죄의 욕망조차 전혀 없는 사람만이 돌을 들어 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쥘림도 없고, 전혀 가책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은 바리새인들 보다는 더 완악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편을 들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용서와 회복에 있지만, 이는 (무조건) 죄와 잘못에 대한 변별력조차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